

대행 스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라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다 보니 사람 목숨도 참 하찮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먹고사는 것도 큰 부담이 되니 인생이 참 고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는지요.

답변 오늘날의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가 아파도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도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이 없는데 사후가 있겠습니까.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게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건만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햇빛 주랴, 묵은 빛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마음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기복으로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어느 종교나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 놓을 때 공짜로 떼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한번 만나면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헤어졌을 때는 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이렇게 만나서 이럴 때는 원력이 있는 스님네라면 스님네한테 충전을 해 갑니다. 충전 있죠? 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서 한 일주일 가면 또 충전이 빠져요. 그럼 또 충전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아니, 그렇게 이름이 많아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줍니까?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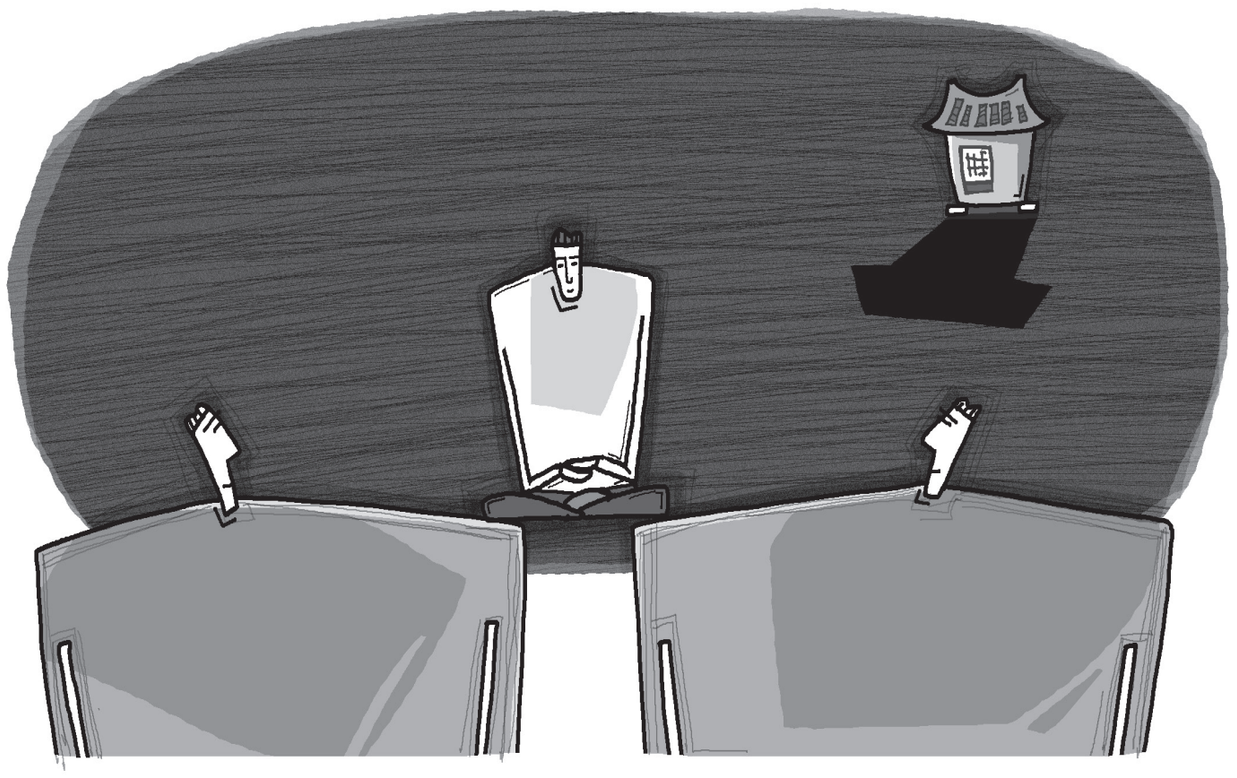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문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는지요.

답변 우리가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 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 한 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